

제26호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 최동섭 계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

소풍가는 날.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두어줄과 칠성사이다 한병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 그래서 구멍가게 철수녀석이 제일 부럽던 그때.

어릴 적 선망의 대상이었던 칠성사이다와 매일을 같이 하는 행복한 사나이.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의 최동섭 계장을 만나보았다.

■ 누가해도 할일이면 내가하자. 언제해도 할일이면 지금하자. 내가지금 할일이면 더잘하자.


1979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2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은 칠성사이다, 2%, 망고, 콜드 등 약 180종의 음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1991년 1월 이곳에 입사하여 2년동안 기계설비보전 업무를 담당하던 최동섭 계장은 안전 사고의 다발로, 근로자의 안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1993년부터 사무과로 발령받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누가해도 할일이면 내가하자. 언제해도 할일이면 지금하자. 내가지금 할일이면 더잘하자.」라는 책에서 본 글귀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안전업무에 임한다는 최동섭 계장은 평상시 잘못된 습관·습성을 버릴 것을 근로자들에게 재차 강조한다.

■ 남을 먼저 사랑하는 안전인

안전을 하면서 근로자들과의 유대관계에 힘쓰는 그는 평소 볼링과 당구를 즐겨 퇴근 후 근로자들과 자주 게임을 즐긴다. 게임을 통한 취미생활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슴 따뜻한 그이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양보도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최틀러’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과거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례집을 직접 만들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동종재해의 근절을 위한 그의 노력과 근로자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내일 당장 회사를 떠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아~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정말 프로였구나.’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그에게서,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의 안전이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의 노력이 무재해의 결실로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는 오늘도 박하사탕처럼 시원한 웃음을 머금은 채 현장으로 향한다. 

〈성호연 기자〉